



축산물 가격의 변동



김 정 주
건대 농경과 교수

어느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막론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처럼 상품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의 변동을 오랜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면 일정한 주기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이러한 가격변동주기를 잘 활용하면 이익을

볼수있으나 만일 이러한 주기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항상 뒷북을 치는 결과가 되어 손해를 보고 말것이다. 한편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도 이러한 가격 변동주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면 축산농가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축산물의 가격변동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축산물의 가격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가격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봄과 가을이 다르

며 해마다 다를뿐아니라 몇년의 간격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먼저 말한 아침과 저녁에의 가격차이와 같은 변동을 단기변동, 계절에 따른 변동을 계절변동, 해를 거듭함에 따른 변동을 연간변동, 몇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추세 또는 주기변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의 원인은 축산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인 것이다.

1. 축산물가격의 단기변동

축산물가격의 단기변동은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소비자 또는 구매자들이 수시로 그 평가를 달리하기 때문에 생긴다. 팔사람과 살사람들이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하여 결정된 가격은 매일 다를수도 있고 주간 혹은 월간에도 달라질수 있다. 같은날 같은 시장내에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소와 같은 대가축의 산지가격은 5일 간격으로 열리



는 그 지방의 정기 가축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매일의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으나 닭과 같은 소가축일수록 산지가격의 변동폭이 커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축산물의 도매가격은 산지시장가격에 비하여 자주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축산물의 도매가격은 산지시장가격에 비하여 자주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도축장을 겸하고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은 매일 열리게 되고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나 그들의 취급량도 매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산물중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은 오랫동안 정부고시가격을 적용받아온 탓인지 연동가격제를 채택한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가격의 『하방경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동가격이라 함은 마치 줄의 한쪽 끝을 흔들면 그 파장이 다른 쪽 끝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소비자 가격을 산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격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산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 못하는 축산물의 소매시장 기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지 않은채 수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식육판매업자의 담합행위와 무관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연동가격제 대신 완전한 시장기능에 가격 형성을 맡기는 자율가격제를 택하려는 시도가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가격구조하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상과 같이 축산물 가격의 단기변동은 시장의 형태와 시장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내지는 미래의 예측등에 의하여 수시로 이루어짐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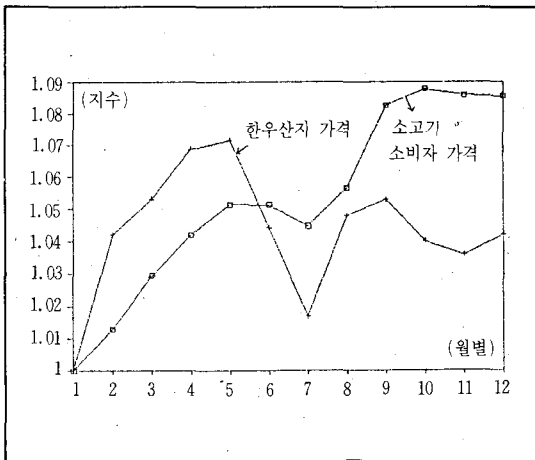
2. 축산물가격의 계절변동

축산물가격의 계절변동은 축산물가격이 1년 이내에 보이는 정기적인 변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의 계절성은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 및 시장유통이 계절

성이 있으므로 생기는 결과이다. 예를들면 축산물의 생산은 사료작물의 생육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사료작물의 생육의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축산물의 소비는 명절이나 기후등에 따라 영향을 받아 결국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축산물의 공급과 수요가 변동하며 따라서 가격도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생산은 곡류나 채소, 과일류에 비하여 그 계절성이 뚜렷하지는 못하나 공산품에 비하면 계절성이 뚜렷하다.

축산물 공급의 계절성은 저장에 의하여 다소 완화시킬수 있다. 축산물은 종류에 따라 저장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상품을 막론하고 저장은 저장기간에 비례하여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축산물의 저장은 예상 미래가격과 현재 시장가격의 차이가 저장비용과 최소한 같거나 클때 이루어질 것이다. 즉 『미래예상가격-현재시장가격 > 저장비용』이라는 식이 성립될 때 저장행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장비용은 상·하차비, 창고임대료 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저장중 감모량 환산액, 기대가격의 하락에 의한 위험부담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림 1〉 한우 및 쇠고기 가격의 월별 변동(1979-1989)



주: 1월 가격을 기준한 지수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각년도)

축산물 수요의 계절성도 광고, 요리방법의 개발, 유행의 창조등에 의하여 다소 완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요리방법의 개발로 삼복더위에 금기처럼 되어 있는 돼지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킬수도 있고 한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유행에 따라 아이스크림 소비를 촉진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한우의 산지가격과 쇠고기의 소비자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9년 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11년간의 매월가격을 평균하고 1월가격을 기준하여 산출한 한우산지가격지수와 쇠고기 소비자가격지수를 그림으로 그린것이 〈그림-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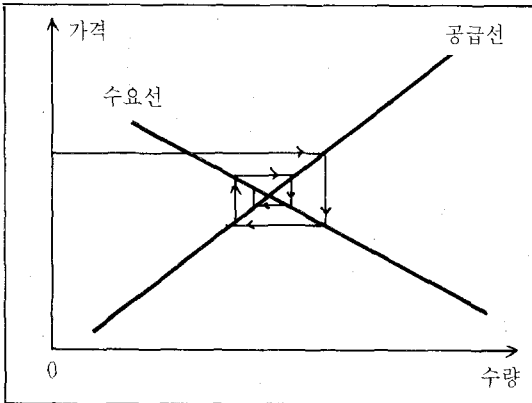
〈그림-1〉에서 본바와 같이 한우의 산지가격은 1월에서 5월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7월에는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일반농가의 영농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바 사료작물이나 산야초의 생육이 왕성하여 초자원이 풍부한 봄에는 농가의 한우입식이 늘어나다가 농번기인 6, 7월에는 입식이 줄고 농번기가 끝난 8, 9월에 잠시 입식이 늘다가 수확기인 11월에 다시 입식이 하락하는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한우 산지가격에 비하여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지 않으나 6, 7, 8월 여름동안 쇠고기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우의 산지가격과 관련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율가격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가격임을 알아야한다. 즉 소비자를 의식한 물가당국은 수입 쇠고기를 통하여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진폭을 상당히 완화시키려 노력하기 때문 어찌되었건 소의 경우 산지가격은 소비자 가격에 비하여 훨씬 변동이 심하여 결국 한우 사육자는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고 영농을 영위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주기변동

주기변동은 몇년간격으로 가격자체가 정기적인 변

동을 반복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적 변동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기 순환과 관련이 있을것이나 정확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통설로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생산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정한 시차가 있는후에 생산으로 이어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론이 바로 『거미집』정리이다. 『거미집』정리란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가격과 공급량이 상호 적응해 가는 형태가 마치 거미집처럼 되어 있다는 데에는 연유된 말이다. (〈그림-2〉)

〈그림 2〉 거미집 모형의 수렴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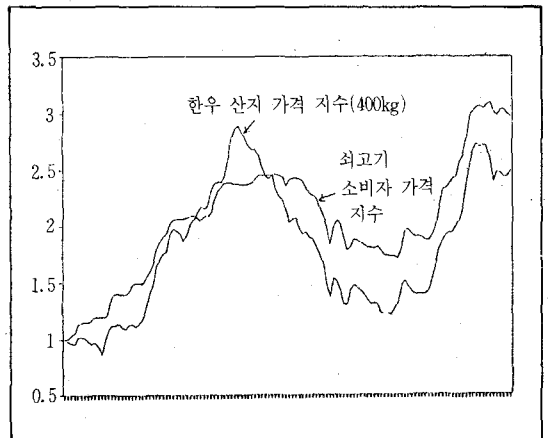


특히 농업생산에 적용되는 『거미집』정리의 형태가 흔히 말하는 콘-호크사이클(Corn-Hog cycle)이다. 콘-호크사이클이란 옥수수와 돼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형성은 몇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균형가격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한 농가가 시장에 나가보니 돼지가격은 비싸고 옥수수 가격은 싼것을 발견하고 싼 옥수수를 사다가 돼지를 키워 몇개월 후에 시장에 돼지를 출하하려 하자 옥수수 가격은 비싸지고 돼지가격은 싸졌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많은 농가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돼지는 과잉생산이 되고 옥수수는 과소생산이 된 결과이다. 이번에는 옥수수를 비싼가격에 팔 계획으로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옥수수를 경작하여 추수기에 이르니 옥수수 가격은 폭락

하고 돼지가격은 다시 폭등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옥수수의 수요와 돼지의 공급에 생육기간이라는 일정한 시차가 있어야 하므로 옥수수와 돼지가격은 등락을 일삼는 가격순환이 바로 콘-호크사이클이다. 물론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결국 적정량의 옥수수와 돼지가 생산되는 결국 균형된 가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1979년 1월 부터 1989년 12월까지 11년간의 한우의 월별 산지가격과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변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3〉이다.

〈그림 3〉 한우 및 쇠고기 가격 지수 변동



주 : 1979년 1월 가격을 기준한 가격지수임.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1990

〈그림-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우 및 쇠고기 가격 변동 모습은 마치 굴곡이 심한 하나의 산(山)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3~4년 간격의 주기가 있음을 육안으로 관찰할수 있으며 특정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2~3개월 간격으로 작은 등락을 일삼고 있음도 알수있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 경험이 많은 축산경영자는 앞으로의 추세를 전망하기도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축산물 가격의 추정에 해당된다.